

“청년선교 부흥의 핵심, 십자가 신앙 교육에 있다”

고성준·여주봉 목사, KWMF 선교대회 둘째 날인 25일 발제

한인세계선교사회(KWMF)가 24일부터 27일까지 천안 소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차세대 선교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둘째날인 25일 오전 영성과 주제 강의로 각각 고성준 목사(수원하나침례교회)와 여주봉 목사(포도나무교회)가 강연했다.

특히 여주봉 목사는 ‘2+2인턴선교사 플랫폼(청년세대 맞춤 단기선교)을 통한 청년세대 회복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가 설립한 (사)청년선교의 청년선교 전략을 전했다.

여 목사는 “(사)청년선교의 한 핵심적인 사업은 청년들의 해외선교훈련 ‘두드림투게더’다. ‘두드림투게더’는 우리나라의 청년세대를 하나님께 돌리고 그들을 열방으로 보내는 청년 맞춤형 미션운동”이라며 “청년 두 명을 한 조로 1년씩 파송하되 6개월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파송함으로써 한 곳에 계속해서 청년 4명이 한 팀을 이뤄 선교지에서 훈련받고 섬기게 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이 운동의 궁극적 지향점은 단순히 청년들을 해외선교로 보내는 것에 있지 않다”며 “무엇보다 핵심은 사역이 아니라 ‘청년 인재

양성과 훈련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선교사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면서도 온전한 훈련자로서 배움에 목적을 둔다”며 “언어와 문화, 관계와 리더십 등을 배우고 성장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자리나고 자기 관리를 배운다.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며 자신의 달란트도 발견한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고 훈련받는 청년 4명이 함께 1년간 훈련받고 생활하면서 사역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됨을 경험한다”고 했다.

“두드림투게더는 체류 생활비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팀을 이뤄 배려심과 협동심을 기르는 데 집중한다. 또 현지 선교사와 함께 하며 삶으로 배우는 신앙 훈련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선교적 삶을 체득하고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동행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도록 한다.

여 목사는 “저는 젊은이들이 현지 선교사로 생활하기보다, 지금 여기서 선교적



“차세대를 생각하며” KWMF가 ‘차세대 선교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24~27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삶을 살아내길 원한다”며 “무엇보다 청년들이 사역의 열매보다 예수 그리스도적 중심의 생각과 마음을 지니도록 교육한다. 청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럴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2인턴선교사들은 현장에서 여러 유익의 훈련을 받고 1년 만에 다시 돌아와 지역교회와 캠퍼스, 직장, 가정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며 한국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의 오는 세대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2인턴선교사를 다녀온 청년들의 고백을 보면 중동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어린이 사역과 청년 선교 등을 담당하며 한 명의 어린이에서 시작된 주일 학교가 100여 명으로 부흥하고, 청년들의 성경공부 모임과 예배당이 세워진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인턴선교사를 체험한 청년들은 “내 안의 우상이 깨어졌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됐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다” 등을 간증했다고 한다.

여주봉 목사는 “2+2인턴선교사를 다녀온 청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NGO 전문인 선교사, 선교단체 간사, 지역교회 사역자, 대안학교 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며 “향후 세계 250개 국가 또는 지역에 매년 1천명의 인턴선교사 파송

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어 노성천 선교사(KWMA 협동 총무)는 논찬에서 “여주봉 목사는 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십자가 신앙을 꼽고 있다. 그는 이 시대 한국교회가 남유다의 종교와 비슷하다고 했다. 남유다는 율법과 종교적 형식을 잘 지켰지만 삶은 살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십자가 신앙으로 살지 못한 신앙은 가짜 휘발유를 넣는 자동차와 같다. 어쩌면 포도나무 교회의 청년선교 부흥의 성공엔 십자가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즉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선택강의에서 김장생 선교사(원주CCC 대표)가 ‘X세대 선교사와 Z세대의 연합선교’, 최을 선교사(선교한국 사무총장)가 ‘세대별 핵심 질문의 변화와 선교 동원’, 탁영준 선교사(페루 Hilltop 대표)가 ‘다음 세대 선교사 MK: 성경적 훈련과 양성, 조성규 선교사(캄보디아 선교사가 컨택트 미션, 주어진 7년, 박보경 장사대 선교학과 교수가 ‘아들람의 집 이야기, 장규준 선교사(Adullam Community in the Endtime 사무총장)가 ‘1.5세 사역의 필요성과 지역전략’을 각각 발제했고, 선교사들과 현장 토의를 진행했다. ▶관련기사44회 노형구 기자

“경제 번영·교회 부흥... 참전용사 희생 헛되지 않았다”

한교연, 25일 ‘리멤버 투게더’ 행사 진행

주한미군 사령부 군중부실장 조슈아 목사 가족에 감사패 전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25일 경기도 팽택 팽섭읍 길위의교회(담임 정용준 목사)에서 ‘리멤버 투게더’ 첫 행사를 진행했다. ‘리멤버 투게더’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 또는 북한 포로로 잡혀 생사를 알

65주년 맞은 ‘서울대 학교기독교총동문회’ >> 7면

찬양사역자 켄트 헨리 “끊임없는 예배기도” >> 22면

수 없는 참전용사의 가족에게 위로와 감사패를 전하는 사업으로 한교연은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본 행사에 앞서 진행했다.

이날 한교연은 주한미군사령부 군중부실장인 페인 조슈아 목사(중령)의 삼촌 등 가족 4명이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한미군 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리멤버 투게더’ 사업의 취지를 알리는 한편 주한미군사령부 정문 옆에 위치한 길위의교회에서 감사패 전달식을 거행하게 됐다.

조슈아 목사는 참전용사 4명 중 현재 유일한 생존자로 미국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삼촌 로버트 씨(95세) 자택을 실시한 인터뷰 영상으로 연결해 6.25 한국전쟁 참전 당시의 소회를 나누었다. 로버트 씨는 영상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해 맥아더 장군을 보좌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공산군과 싸우다 많은 전우들이 전사했는데 오늘날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된 나라가 되고 특히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기독교를 믿는 국민이 많다는 소식에 감사한다”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감격해 했다.

로버트 씨는 형제 11명 중 4명은 2차 대전, 4명은 한국전에 참전했는데 어머니가 성조기를 밖에 걸어두어 자식의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했다는 일화도 전했다.

삼촌을 대신해 감사패를 받은 조슈아 목사는 “한국전 참전용사 가족을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감사하다”며 “5월에 미국으로 돌아가 삼촌인 로버트 씨에게 감사패를 꼭 전해주겠다”고 했다. 또 자신의 부친은 베트남 전에 참전했으며, 그때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면서 자신의 가족이 지난 72년 동안 한국을 위해 헌신했는데 자신도 주한미군사령부에 발령을 받고 한국에 오게 돼 너무나 기

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전달된 감사패는 한쪽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사진과 다른 한쪽엔 참전용사의 사진이 들어가 있다.

감사패를 전달한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6.25 한국전쟁에 미군이 참전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 치하에 있을 것”이라며 “참전용사 중 7500여 명이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 상태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한교연이 그분들의 유해를 찾아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기 위해 ‘리멤버 투게더’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은 ‘리멤버 투게더’ 한정운 위원장의 사회로 사무총장 최규수 목사의 참석자 소개,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기도, 감사패 전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교연에선 명예회장 김병근 목사와 상임회장 홍정자 목사, 공동회장 김명식 목사가 참석했으며, 주한



한교연은 주한미군 사령부 군중부실장 조슈아 목사(앞줄 가운데) 가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왼쪽 뒤편 TV 모니터 속 인물이 조슈아 목사의 삼촌인 로버트 씨. ©한교연

미군 측에선 미8군 군중실장 대령 이선철 목사와 통역병 등 6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교연은 오는 6월 25일을 즈음 해 미국에서 6.25 참전용사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는 예배와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202 201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서울-동탄 GTX-A 개통완료!」

동탄, GTX로 감탄하다!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오피스텔

GTX-A 개통완료 (수서-동탄 구간)

선남숲 영구조망 (일부호실 제외)

선착순 특별혜택

1833-3008

hillstate-le-centum.co.kr

KB부동산 pine grove 현대엔지니어링

HILLSTATE